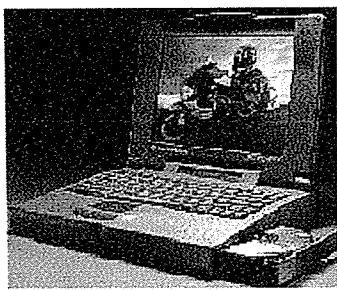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노트북 익스텐샤 570CDT



노트북 시장은 빠른 배
속의 CD-ROM드라이브
와 사운드 카드, GB급
하드 디스크로 무장하는
경향이어서 그 사양만으
로도 보는 이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 6배속 CD-

ROM드라이브와 1.2GB 하드 디스크, 10.4인치 TFT 디스플레이에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익스텐샤 570CDT는 반도체 생산 기술을 자랑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가 만들어 미국에서도 큰 돌풍을 일으킨 제품이다. 디자인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겹은색 일변도인 노트북이 전한 회색으로 치장해 화면과 기타 장치들이 아주 잘 보인다는 것이 한가지 큰 특징이다. 사용자를 배려하여 약간 흔듯한 키보드와 손목 받침대가 독특하다. 익스텐샤 570CDT는 PCMCIA 카드 타입 III 또는 타입 I/II를 2개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있어 팩스 모뎀이나 SCSI장비, LAN 카드 등을 연결하면 통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까지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외부 오디오 제품과 연결이 가능한 마이크, 스피커 입·출력 잭, 원격지에서도 인쇄나 데이터 교환을 할 수 있게 하는 IrDA적외선 시리얼 포트가 있다. 병렬/직렬 포트와 외부 VGA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포트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확장 버스 커넥터와 노트북 키보드나 터치패드 마우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외부 PS/2포트가 준비되어 있어 PC에서 사용하던 마우스나 키보드를 장착할 수도 있다. 노트북으로는 파격적인 1.2GB의 하드 디스크를 보유하는 이 제품은 3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니켈 수소 배터리가 있으며 실제 사용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이며 CD-ROM드라이브를 장착한 후 음악 CD를 감상한다면 1시간 내외를 사용할 수 있다. 익스텐샤 570CDT의 큰 장점은 바로 6배속 CD-ROM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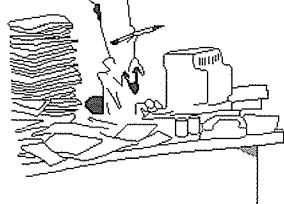
구 분	TI 멀티미디어 노트북 익스텐샤 570CDT
프로세서	100MHz Pentium
버스 아키텍처	PCI
메모리	기본 8MB 최대 40MB 캐시메모리 16MB(Internal) 256KB(L2)
모니터	10.4 SVGA TFT. 해상도 800×600, 256컬러, 1MB video RAM.
멀티미디어	6배속 CD-ROM 16비트 사운드
하드디스크	810MB HDD(570CD) 1.2GB HDD(570CDT)
배터리	NMH
키보드	윈도95용 키보드 터치패드식 포인팅 디바이스
OS	윈도95, 워크그룹용 윈도
무게	2.9Kg(295mm×55.9mm×228.4mm)

라이브를 장착, 동종 제품보다 빠른 속도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16비트 사운드와 음성인식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폰은 수준급에 달한다. 그러나 익스텐샤의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몇가지 이유도 있다.

즉 휴대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헤비급 무게라는 점, 6배속 CD-ROM드라이브의 큰 소음과 많은 발열량, 그리고 가격이 3백40만원으로 고가여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 소스 이노베이션사의 다기능 모니터





이제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스피커, 마이크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들을 하나의 몸체로 통합한 모듈라 이 그제큐티브 데스크패드(Modula Executive Desk Pad)가 소스 이노베이션사에 의해 발표됐기 때문이다. 검정색의 데스크 패드는 $27 \times 19 \times 0.5$ 인치의 작은 크기이며, 반짝이는 책자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제품은 스크린은 256컬러이고, 640×480 의 해상도를 가진 VGA카드를 장착하고 있으며, 스피커는 상단부 양쪽 코너에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소형 마이크는 데스크 패드의 중앙부에 장착되어 있다.

직류 어댑터와 VGA어댑터, 마이크, 오디오 카드를 위한 포트와 외부 키보드와 마우스를 위한 포트도 마련돼 있으며, 무선 적외선 포트도 장착돼 있다. 그러나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그리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그리고 이 제품은 PC디자인에 있어 획기적인 실현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다. 가격은 3천2백50달러이며, 윈도3.1 이상의 버전, 사운드 블래스터 오디오 카드, 4MB 이상의 램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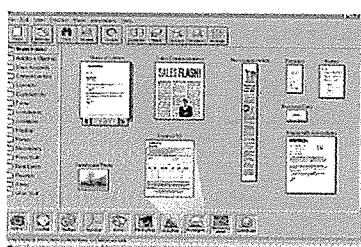
■ 비지오니어사의 스캐너 복합 키보드

비지오니어사는 컴팩 제품에 장착된 바 있는 페이퍼 포트 스캐너가 내장된 페이퍼포트(Paper Port) IX키보드를 출시했다.

비지오니어의 101키 키보드와 400dpi에 8비트 그레이 스케일을 지원하는 스캐너가 합쳐진 제품이다. 다른 일반 키보드와는 달리 페이퍼포트 IX는 퍽처웍스 카피어(PictureWorks Copier)와 같은 소



프트웨어가 제공되며
코렉스의 OCR카드와
회사 업무용 카드 인식
프로그램인 카드스캔



SE도 함께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개인용 일정관리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다. 그리고 비지오니어가 개발한 폼타이퍼(FormTyper)는 스캐닝한 문서 형식에 자동이나 수동으로 수정 가능한 필드를 만들어 주며, 빈 필드에 입력한 후 인쇄할 수 있다.

페이퍼포트 스캐너에 제공되는 것과 같은 페이퍼포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는 제록스의 OCR용 텍스트브리지(Text Bridge)엔진이 통합돼 있다. 스캐너에 종이를 삽입하면 자동으로 페이퍼포트 애플리케이션이 수행되며, 스캐닝된 문서는 페이퍼포트 VX와 같은 뛰어난 품질을 제공한다.

가격은 3백49달러이다.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97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윈도95의 차기 버전은 96이 될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올 1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96을 만들지 않고 윈도95의 버그 수정만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새로운 윈도 버전보다 애드온 프로그램의 개발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윈도95의 특수한 기능을 윈도97에 구현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올 2월 윈도NT의 새 버전에서 베타 테스트가 시작됐으며, 여름에 완성판이 출시되고 윈도96 인터페이스를 통합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버그 수정을 자사의 웹 사이트에 올려 놓은 패치에 포함시키고 있고 CD-ROM서비스 팩으로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윈도95 서비스 팩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새로운 내용】

추가된 것 중에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2.0이다. 다이얼업 인터넷 연결을 위해 향상된 설치 마법사가 좀더 친숙한 다이얼업 스크립트 도구, 이 두가지 인터넷 애드온이 제공된다. 또한 휴대용 PC와 적외선 포트가 장착된 테스크톱 사이의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드라이버도 제공된다.

【버그수정】

윈도95 패스워드 캐쉬에 대한 암호화 강화, 갱신된 파일 공유 및 프린터 공유 서비스가 인터넷 사용자들이 부딪칠 수도 있는 안전에 관한 허점을 보강했다.



〈윈도97 대 원도NT〉

특징	원도97	원도NT4.0
PnP	NT유형의 드라이버로의 변환은 하드웨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전의 디바이스들은 '지원되지 않음' 이란 딱지가 붙을 것이다. 하지만 호환성은 여전히 목표가 될 것임	NT의 보안층은 가장 버릇없는 하드웨어 장치 들의 공공연한 숙적이다. PnP기능은 서서히 NT로 이전될 것이다.
멀티 미디어	마이크로소프트는 궁극적인 게임 플랫폼을 거느하고 있다. 디렉트엑스 고성능 시운드 드라이버와 비디오 드라이버가 윈도97에 통합될 것임.	NT에는 더욱 향상된 디렉트 엑스 사운드 드라이버와 비디오 드라이버가 구현될 것이다. 이것은 윈도95 게임을 기업체에서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임.
MSN	MSN을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자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열밀쯤 개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MSN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올해 출시되는 NT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휴대형 컴퓨팅	PnP는 새로운 모니터 크기, 네트워크 연결 등에 즉시 적용시키는 재구성 작업이 진행중이다.	계속적인 노력이 진행중이다. PnP가 없으면 도킹스테이션에 연결할 때마다 노트북을 끄고 다시 시동하여야 한다.

【네트워크기능 개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는 윈도95 컴퓨터가 네트워크 4.X서버에 연결되어 네트워크 디렉토리 서비스NDS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윈도95셀에 상응하는 개신은 NDS열람을 가능하게 해주며 네트워크 서버에서 파일을 복사할 때 데이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모호한 버그를 해결해 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관련 제품들의 개신된 버전들이 어떤 모습일지 경쟁 업체와 고객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그 가운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3.0은 가장 기대가 큰 것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3.0은 넷스케이프사의 네비게이터 2.0에 처음 등장한 HTML 확장버전과 프레임을 디룰 수 있는 능력은 물론이고, 썬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가 플러그인 애플릿(plug-in applet)개발을 위해 제3업체들을 독려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우스를 두번 클릭할 때 연관된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비주얼 베이직(Visual Basic) 및 독오브젝트(DocObjects)십입 OLE 파일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미래를 걸고 있다.

■ E.F. 존슨의 휴대용 TRS무전기 '바이킹(Viking CX)'

언뜻 보기에는 셀룰러폰인지 무전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 제품은 E.F. Johnson이 작년 4월에 출시하여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휴대용 LTR TRS무전기이다. 무게 397그램의 키패드 덮개가 장착된 셀룰러폰형의 디자인을 한 이 제품은 상업용(TRS방식이 아닌) 800MHz에서도 프로그램될 수 있으며 LTR모드에서 최대 100시스템/ 시스템당 10그룹으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이 제품의 키패드는 셀룰러폰에서의 기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수동 다이얼링, 마지막 번호 재拨打, 원터치 다이얼링, 비상사태 원터치 다이얼링, 마이크로폰 뚝음, 키패드 잠금 및 1백개 전화번호 메모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디스패치 반복통신을 제공하는 이 제품은 DTMF 키패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셀룰러폰과 마찬가지로 폴립부분을 접을 수 있다. 키패드 커버를 닫아도 전면 패널 하단에 있는 마이크로폰의 성능에는 아무런 지장을 미치지 않으며 커버를 닫은 상태에서 0.5W의 하이레벨 통화를 제공한다. 걸려오는 전화는 샌드 버튼을 눌러 대답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선택 사양에 따라서는 PTT반복신 모드에서도 대답할 수 있다. 배터리는 세 종류의 메탈-하이드라이드를 사용하여 각각 2.75시간, 7.5시간, 10.5시간의 통화시간을 제공한다.

■ 무선 인터넷

9월 21일 폐막된 PCS 96 전시회의 주요 행사는 개인휴대통신(PCS)분야다. 특히 차세대 디지털 무선통신기술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과 시분할다중접속(TDMA)진용간의 경쟁은 이번 전시회기간 동안 모든 관람객들의 관심사였다. 이들 못지 않게 이번 행사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불잡은 제품이나 기술도 많았다. 특히 전시회에서 각광을 받은 기술은 무선단말기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무선 인터넷(Wireless Internet)과 발전된 형태의 무선호출기술인 고도 페이징(N-PCS)분야다. 우선 무선 인터넷분야는 최근 정보통신 업계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를 받고 있는 무선 통신과 인터넷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무선 인터넷분야에서는 무선 통신기기를 이용해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기술이 전시회기간 동안 여러업체의 부스에서 시연됐다. 모토로라사는 양방향 무선호출기인 '탱고'를 통해 웹을 검색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와 관련, 모토로라의 차세대 메시징부문 마리오 리바스사장은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탱고 단말기로부터 명령을 수신할 수 있는 전용서버를 구축한 뒤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의 정보를 꺼내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경우, 일반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비행기 좌석 정보를 무선호출 단말기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PCS와 미츠비시의 개인이동통신부문에서는 무선 패킷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CDPD(Cellular Digital Packet Data)기술과 무선 위성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을 이용해 이동전화 단말기로 인트라넷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연,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무선호출장비 제조업체인 글레네어사도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검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했다.

이번 전시회 기간중 또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른 부분은 무선호출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는 것이다. 스웨덴의 에릭슨사는 전시회 기간중 무선 데이터장비를 기반으로 한 고도 페이징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모토로라는 양방향 무선호출 단말기를 이용해 무선호출 신호는 물론 인터넷 E-메일까지 전송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 지능형 전화서비스

일반 전화망이 컴퓨터와 결합해 '두뇌'를 가지는 지능형 첨단 전화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지능망 서비스'로 불리는 이 첨단전화서비스는 공중통신망(PSTN)에 대용량 컴퓨터시스템과 공통선신호방식을 결합, 컴퓨터로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고 교환기에 수록된 정보를 응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지능화한 것이다. 한국통신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지능망서비스는 「161신용통화」, 「080착신자요금부담」 「지능형 사설통신망(VPN)」 등이다. 한국통신은 앞으로 전화번호와는 별개로 개인번호를 부여해 위치이동에 관계없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개인번호서비스」와 전화를 이용,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를 자동집계하는 「전화투표-여론조사」 등의 지능형 전화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161신용통화서비스」란 공중전화나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그 이용요금은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전화번호에 부과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업의 영업사원 등이 현금없이 회사업무를 처리하는데 유용한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관할 전화국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한 뒤 신용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야 된다. 이용방법은 「161번」과 신용번호(임의의 7자리 숫자)를 누르고 안내방송에 따라 비밀번호와 상대방 전화번호, 그리고 '#버튼을 차례로 누르면 통화가 가능하다. 또한 이 서비스는 착신번호지정 단축다이얼 등 부가서비스가 선택적으로 제공되는데 이용요금은 5백원씩이다.

「080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는 기업들이 전화상담 주문 예약 등 각종 문의에 대해 서비스 업체가 요금을 부담하는 서비스다. 이는 하나의 080번호로 전국에 위치한 지점들의 착신전화를 대표할 수 있어 특정사업체를 특정번호로 쉽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지능형 사설통신망서비스」는 이용자가 전화사설통신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공중통신망을 마치 전용사설통신망처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첨단서비스이다. 이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지점을 갖고 있는 기업 등이 이용하면 통신망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이 망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그룹 상호간 통화가능 기능과 이 망에 수용되지 않은 가입자와 통화가능한 기능, 이 망에 수용되지 않은 가입자가 수용된 가입자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 등이 기본 제공된다.

이용방법은 해당 전화국 (각국번+0000번)에 가입신청을 한 뒤 전화기에서 166번(VPN식별번호)과 미리 지정한 3~7자리 전화번호를 누른 후 음성안내방송을 따르면 된다. 구내 교환설비를 갖춘 곳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용자가 구내통신장비 기능조작을 통해 식별번호 등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어 작은 구내전화국을 갖는 효과도 있다. 이외에도 보호자와 아이 사이에 사서함을 개설하여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신분증 「키드폰」, 국제전화 통역서비스, 핸드폰이나 무선호출기 없이 사용가능한 VMS 「141연락방」 등 지능형의 첨단 전화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ST